

제 기 차 기

제기차기는 율놀이 경기 예선전이 끝난후 실시했다. 읍면동별 제기차기 참가선수수는 소흘읍 4명, 내촌면 3명, 가산면 1명, 신북면 0명, 장수면 10명, 영중면 10명, 일동면 0명, 이동면 5명, 영북면 0명, 관인면 0명, 화현면 3명, 포천동 4명, 선단동 5명 등 모두 48명이 참가했다.

경기방법 및 규칙

=예선경기는 한 경기에 10명씩 출전하여 제기차기 수가 가장 많은 선수 순위

1, 2위가 본선에 진출한다. (단, 5명까지는 마지막 선수팀에 합류하여 1, 2, 3위가 본선에 진출한다. 6명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1, 2위가 본선에 진출한다.)
=본선경기는 5명씩 출전하여 제기차기 수가 가장 많은 선수 순위 1, 2위가 결승에 진출한다. (단, 3명 미만일 경우, 마지막 선수팀에 합류하여 1, 2, 3위가 결승에 진출한다. 3명이상 5명까지는 1, 2위가 결승

에 진출한다.)
=결승경기는 결승에 진출한 선수중 제기를 가장 많이 찬 순으로 1, 2, 3위를 결정한다. 아차상은 제기차기 참가선수 중 최고령자로 정한다.
=제기를 차다가 손으로 받으면 받은 순간까지의 횟수만 인정한다.
=양발로 번갈아가면서 차는 제기와 제기를 차는 발이 지면에 닿는 유무와 관계없이 차는 횟수로 인정한다.



▲마음먹은대로 되지 않는 제기차기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고 제기차기에 나섰다.



▲그래 해보는 거야, 제기왕을 향해!



▲추신초교 사물놀이팀 (지도 학부모 김기호)



▲경기소리보존회 포천지부 (지부장 박영실)



◀제기는 어디로 갔나? 발을 꼭 뺏어봐도 소용없네요.



▲본부석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내빈.



▲품이 아주 좋아요



▲안타깝군요